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NAFTA 내년 美洲 전역으로 확대

빌 클린턴 美國대통령은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을 美洲전역으로 확대시키는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中美 7개국정상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NAFTA를 미주 전역에 확대, 시행하는 체제를 수립, 내년 1월 이후 권고할 것을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USTR)대표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NAFTA확산계획 수립 시한을 내년 1월 이후로 잡은 것은 캐나다측이 내년 1월 1일 이전에 NAFTA 시행을 선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UR협상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미 7개국정상은 이자리에서 NAFTA와 동등한 혜택을 카리브해 연안국에도 부여해줄 것과 중남미국가들의 NAFTA 가입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고위협의체를 설립할 것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제의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라미로 데 레온 카르피오 과테말라 대통령이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NAFTA가 美하원을 통과한 후 중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7억인구를 가진 이 지역을 모두 협정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NAFTA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중미지역보다는 남미국가를 우선하되 특히 칠레를 대상으로 NAFTA 확대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美, 무역전자 대폭확대

美國의 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확대돼 지난 3·4분기중에는 362억 8,000만달러에 달했다고 美상무부가 발표했다.

이같은 무역수 지적자는 2·4분기의 343억 8,000만달러나 돼 지난해 3·4분기 276억 1,000만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를 인플레 효과를 제외시킨 87년달러기준으로 환산하면 3·4분기중 무역수지적자는 368억 9,000만달러로 2·4분기의 250억 6,0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ㄷ욱 늘어나게 된다.

미국의 3·4분기중 무역수 지적자가 이같이 늘어난 것은 수출은 1,119억 1,000만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1.1% 감소한데 비해 수입은 1,481억 9,000만달러로 0.5%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美國의 對OPEC(석유수출국기구) 무역수 지적자는 유가하락과 석유수입량 감소로 2·4분기의 44억달러에서 3·4분기에는 40억달러로 감소한데 반해 對日 무역수 지적자는 142억달러에서 147억달러로 5억달러가 늘었다.

3. 美·EC, UR협상 큰 진전없어

미국과 EC 통상협상대표는 11시간여 동안 가진 마라톤회의에서 스투알트 아이센트타트 주EC미국대사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EC측도 협상과 관련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UR협상 타결을 위한 완전한 타개 방안에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크 에스피 美농무부장관은 비행기를 놓쳐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EC와 미국관리들은 이와관련, "에스피장관은 2일 오전(현지시각) EC집행위 브뤼셀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아 데 페인헤이로 EC시청각서비스 위원과 칼 팔켄베르그 EC고위시청각협상대표는 4시간의 회의를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

4. 美 무역장벽 代價 연190억弗

미국인들이 자국의 무역장벽으로 연간 190억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보고서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ITC측은 UR협상 타결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무역장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미국 내 44개분야를 선정했다.

ITC는 이 보고서에서 그간 무역장벽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는 분야로 의류와 직물분야를 꼽았다.

ITC측은 이 2개분야에서 고관세와 쿼터제도로 인한 소비자 및 생산자들의 추가비용부담액이 연간 158억 5,000만달러에 달해 전분야 추가비용부담분중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무역장벽이 해소되면 미국내 의류제품의 평균가격이 11.4%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전분야를 합산할 경우 무역장벽제거시 소비자가격이 평균 3% 하락하게 된다고 ITC측은 추산했다.

또 의류분야에 이어 소비자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가방류로 9.1%의 가격인하가 가능하며 설탕가격은 8% 떨어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TC는 그러나 무역장벽이 해소될 경우 고용감소현상이 야기되며 의류산업분야에서만 현 고용인력의 6%에 해당하는 4만 6,724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대신 무역장벽제거로 인한 일부분야의 고용감소현상은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출증대와 미국상품의 대외수출확대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ITC측은 지적했다.

ITC측은 이번 조사에서 자동차, 철강 및 원면 등에 대해서는 무역장벽 제거에 따른 비용감소나 고용에 대한 영향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사기준연도인 91년에 이들 품목의 수입물량이 쿼터한도를 밑돌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5. 멕시코 北美 FTA비준

멕시코상원은 표결을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56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협정안 표결에 앞서 야당측은 NAFTA체결로 멕시코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총 64석의 상원의석중 61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인 국가혁명당(PRI)의 의도대로 협정은 손쉽게 통과됐다.

표결을 앞두고 개최된 찬반연설에서 NAFTA 반대론자들 협정체결로 모든 장벽이 철폐될 경우 멕시코의 정치, 경제 및 문화는 미국에 의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혁명당(PRD)의 포르피리오 무노즈 레오의원은 NAFTA가 새로운 식민지 법안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협정시행은 미국 및 캐나다에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AFTA 찬성론자들은 협정체결로 멕시코경제는 고용확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견해

를 폈다.

여당인 PRI의 카롤로스 살레스 구티에레즈 의원은 협정반대론자들이 잘못된 이론을 전파하고 있다면서 NAFTA 시행은 멕시코의 정치, 경제전반에 걸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6. 日, 내년도 貿易黑字 축소

일본은 내년도(94년4월-93년3월)중 엔高 영향으로 수출이 1.9%의 신장에 그치는 반면 수입은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제품수입 급증으로 7.7%의 대폭 확대를 보여 3년 연속 팽창해 온 무역흑자가 9.2% 감소되는 1135억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일본무역회가 1일 발표한 93년도 및 94년도 무역전망(통관기준)에 따르면 93년도 무역액은 수출이 전년도보다 6.4% 증가한 3660억달러, 수입이 3.4% 증가한 2410억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무역흑자는 12.6% 증가한 125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4년도엔 수출이 1.9% 증가한 3730억달러, 수입이 7.7% 증가한 2595억달러로 보고 있다. 수출에서는 경제긴축정책의 여파로 중국에 대한 철강의 대폭적인 감소가 확실한 외에 화학제품 및 선박이 줄어들 전망이다. 동남아에 대한 자동차 및 미국에 대한 반도체 등은 견실한 신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신장률은 0.3% 증가에 그쳐 89년도이래 저조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은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 기기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이 전망작성과 관련, 일본무역회는 일본의 94년도 경제성장률을 1.4%, 환율을 107.5엔, 원유가격을 배럴당 18달러로 설정했다.

한편 일본종합연구소·사카라종합연구소·농림中金종합연구소는 최근 내년도와 내년도 이후의 경제전망을 각각 발표했는데 모두 5조-6조엔규모의 소득세 감세를 실시해도 내년도엔 1%미안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종연은 98년도까지의 중기적인 경제전망을 발표, 96년도에 소비세율을 현행의 3%에서 6%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실질경제 성장률은 0.5%이며 2%대로 회복하는 것은 97년도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득세 감세를 10조엔으로 확대하고 통신망정비 등 사회자본에 대한 집중투자, 법인세 부담경감 등 긴급대책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대책을 취하게 되면 95년도중으로 자율적인 회복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이 연구소는 주장하고 있다.

사쿠라종연의 내년도 경제전망은 5조엔의 소득세 감세와 재할인율의 0.5% 인하 등을 전제로 시산했는데 그래도 기업의 수익환경이 좋지 못해 성장률은 0.4%로 예상되고 있다.

農中종연은 5조엔규모의 소득세 감세와 5조엔의 공공투자 추가실시 등을 예상해도 내년도 성장률은 0.6%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금년도 성장률은 일본종연과 사쿠라종연이 마이너스 0.7%로 모두 마이너스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6. 일본, 전자공업 생산 부진

금년중 일본내 전자공업 생산액은 전년비 7% 줄어든 약21조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91년의 25조 3,000억엔에서 4조엔이나 밑돌 전망이다. 일본의 電波新聞 보도에 따르면 일본내 AV수요침체로 민생용 전자기기가 전년실적을 15% 이상 밑도는 외에 산업용 전자기기도 약 7%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부품·디바이스는 전년수준을 겨우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日本電子器械工業會는 금년중 생산액을 전년비 1.5% 늘어난 22조 9643억엔으로 예상했으나 수요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의 수정이 불가

피해지고 있다.

일본의 전자공업생산이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급격한 엔高로 수출에 제동이 걸리고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시장에선 美경제가 완만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유럽은 여전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또 아시아는 급속한 경제개발에 힘입어 전자기기의 수요가 왕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시장은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 내년중반이후에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일본전자기계공업회는 금년중 예산을 22조9643억엔으로 예상했다. 상반기엔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세를 면치 못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도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불황 장기화에 냉하·엔高까지 겹침에 따라 전자공업생산액은 당초 전망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생용 전자기기는 당초 전년동기비 3.5% 감소한 3조 7630억엔으로 전망됐으나 1~8월중 생산이 젼년동기 실적을 16.4%나 하회함에 따라 이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또 산업용 전자기기는 1.1% 증가한 10조 7947억엔으로 예상됐으나 1~8월중 생산은 6.9% 감소했다. 전자부품·디바이스는 4.4% 증가한 8조4066억엔으로 전망됐으나 1~8월중 생산은 0.9% 줄었다.

1~8월중 민생용 전자기기 생산액은 컬러 TV가 전년동기를 8.1% 밑돈데 이어 고정형 VCR·카메라일체형VCR·음향기기가 각각 24.8%, 23.7%, 12.9% 하회했다.

결국 AV시황부진·엔高·해외생산 확대는 일본내 민생용 전자기기생산을 큰폭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금년중 산업용전자기기 생산액도 10조엔을 밑돌 전망이다. 컴퓨터와 관련해선 WS(워크스테이션)가 두자리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퍼스컴 등 다른부문은 부진, 전체적으로 10%의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통신기기의 경우 이동통신관련기기의 수요호조가 주춤한데다 단말기·NTT수요가 저조, 전년비 3%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때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으나 내년엔 중국 특수 메리트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계측기도 생산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측정기는 설비투자감소로 큰폭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전자디바이스는 전년수준의 생산액을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퍼스컴·주변장치 수요호조 등에 힘입어 반도체·표시소자들의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부품은 전년실적을 밑돌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부품의 생산감소는 ASEAN·중국에 대한 생산시설의 이전이 지난봄 이후 급속도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디바이스도 4메가D램 등 메모리계통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만 수급이 빠듯해질 뿐 전반적으로 전년수준을 다소 웃도는 생산동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액정을 중심으로 한 표시소자도 수량면에선 높은수준의 생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단순매트릭스타입은 민생용 수요부진 등으로 가격하락세가 현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디바이스 만큼은 생산이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중국, 산업구조 조정계획 확정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최근 향후 7년동안 추진할 산업개발 및 구조조정에 관한 주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 관개시설 확충에 우선권을 두고 고수확, 고품질, 고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

개발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기초산업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석탄, 원유, 전력, 철도, 고속도로, 항공, 화학, 유학, 철강, 비철공업과 관련된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기계건설업종에 사용되는 기초부품의 생산뿐아니라 교통 및 에너지산업용 장비 폴세트의 생산에 강조점을 두고 기간산업의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집적회로, 컴퓨터, 통신장비 및 신세대 가전제품의 생산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유화산업의 경우 에틸렌 및 주요 합성원료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차 산업은 세단차와 경트럭 생산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설업종의 경우 주택건설 프로젝트, 공공시설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경공업 및 섬유산업은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제품품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편 서비스업종의 개발은 시장체제, 공공서비스, 사회보장제도의 설립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8. 중·EC 무역 급격히 증가

EC가 중국 제4위 교역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EC간 경제적 교류 및 교역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년초부터 9개월동안 쌍방간 교역규모는 173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의 115억달러에 비해 급증했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한 고위관리는 EC가 지난해 30억달러가 넘는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의 최대 기술장비공급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EC의 對中투자는 홍콩,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EC기업들이 생산프로젝트의 운영을 포함한 중국과의 장기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75년 공식적인 관계가 수립된 이후 중국은 EC 및 회원국가들과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이 관리는 중국이 EC상품의 수욕확대 뿐아니라 對EC 수출확대에도 나설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對中 기술수출제한 폐지와 EC의 심사절차 간소화를 촉구하고 있다.

9. 중국 무역적자 올해 100억佛 될듯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대외교역패턴이 4·4분기중에도 수입급증과 수출둔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통계국은 이에 따라 중국의 금년도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24.1%증가한 1,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수출은 7.1% 늘어난 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년에 1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지난 89년이후 처음으로 무역수 지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금년초부터 9개월동안 중국의 총수출입 규모는 1290억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입은 29%늘어난 677억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금부족으로 실질적인 투자증가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4·4분기에 對中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데 대해 낙관하고 있다.

이 기간중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배 증가한 6만 2,000개의 외자기업을 승인했고 여기에 관련된 계약금액이 816억달러에 달했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지금까지 117개국가 및 지역이 對中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